

다니엘서 - 제96번

예언의 세 가지 적용: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적 틀 열기

Jeff Pippenger

2024-02-29

윌리엄 밀러의 예언적 메시지의 틀은 황폐케 하는 두 세력, 곧 이교주의와 그 뒤를 이은 교황권이었고, Future for America의 예언적 메시지의 틀은 이교주의, 그 다음 교황권, 그 다음 배도한 개신교라는 황폐케 하는 세 가지 세력이지만, 마지막에는 이 모두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밀러의 예언적 이해의 주된 열쇠는 다니엘서의 "the daily"가 이교주의를 상징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의 예언적 이해의 틀이 된 두 황폐케 하는 세력 사이의 연결을 확립해 주었기 때문이다. Future for America의 예언적 이해의 주된 열쇠 또한 다니엘서의 "the daily"가 이교주의를 상징한다는 것인데, 이교주의의 역사적 성취가 다니엘 11장 40절과 41절의 사건들의 순서를 확립했으며, 그것이 Future for America의 예언적 이해의 틀이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빛이 나타날 때 늘 그렇듯이, 소련이 붕괴한 1989년에 봉인이 풀린 진리의 전진은 수많은 목소리들의 거센 반대를 받았다. 그 진리에 가해진 저항은 예외 없이 그 진리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만들었다. 다니엘 11장 마지막 여섯 절에서 발견되는 그 진리에 맞선 초기 논쟁들 속에서,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예언적 규칙들이 1989년에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리며 일어난 지식의 증가를 뒷받침하는 필수적 증거로 인정되었다. 우리는 현재 그 규칙들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언의 삼중 적용'이라 부른다.

우리는 한 차원에서는 같은 선상에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삼중 적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로마의 처음 두 가지 양상(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은 현대 로마의 세 번째 양상을 확립한다. 바벨론의 처음 두 가지 양상(바벨과 바벨론)은 현대 바벨론의 세 번째 양상을 확립했다. 현대 로마는 현대 바벨론이 타고 그 위에서 지배하는 요한계시록 17장의 짐승이다. 그 둘은 카우보이와 그의 말만큼이나 구별되지만, 서로 영적 음행을 행하므로 그 차원에서는 하나다. 이와 유사한 관계를 지닌 예언의 삼중 적용이 또 두 가지 있다.

엘리아의 처음 두 번의 나타남(엘리아와 세레 요한)은 마지막 때의 세 번째 엘리아를 확립한다. 그와 함께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첫 두 사자(세레 요한과 윌리엄 밀러)도 마지막 때에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확립한다. 예언의 삼중 적용이라는 이 두 가지 계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예언의 삼중 적용에 관한 두 노선의 실제 역사적 대표자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인물들이지만, 두 노선에서의 그들의 목적은 뚜렷이 다르다는 점이다. 둘째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예언의 삼중 적용 사이의 구별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다. 그 구별은 엘리아는 말세의 외적 사역을 대표하고,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사자는 말세의 내적 사역을 대표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께서 세 번째 엘리아와 길을 예비하는 세 번째 사자를, 처음과 마지막의 엘리아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처음과

마지막의 사자로 동일시하신다는 것이다. 첫째 천사의 엘리야 사자와 셋째 천사의 엘리야 사자가 엘리야의 세 번째 성취를 이루며, 길을 예비하는 그 사자는 첫째와 셋째 천사의 운동 모두의 사자로서 표상된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현대 로마의 삼중 연합 사이에서 벌어질 마지막 때의 대결을 보여 준다.

갈멜 산은 이스라엘 북부, 지중해 연안 가까이에 위치한다. 이 산줄기는 대체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뻗어 있으며 약 39마일(63킬로미터) 길이의 뚜렷한 산릉을 이룬다.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알려진 므깃도 골짜기는 갈멜 산의 남동쪽에 위치한다. 갈멜 산과 므깃도 골짜기는 거리상으로 서로 비교적 가깝다. 두 곳 사이의 직선거리(새가 날아가듯)는 대략 20~25마일(32~40킬로미터)이다. 갈멜 산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므깃도 골짜기와 이스라엘 골짜기의 동쪽에는 갈릴리 호수(티베리아스 호수 또는 키네렛 호수)가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의 전쟁이 므깃도 골짜기를 가리키지만, 영감은 예언을 공부하는 이들이 요한계시록이 그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제시한다고 믿지 않기를 원했다. 그래서 아마겟돈(므깃도)을 지칭할 때 산을 뜻하는 'har'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전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이끌고 가게 될 최후의 전쟁을 영적으로 나타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요한은 므깃도를 아마겟돈으로 동일시함으로써 그것을 문자 그대로의 지리적 장소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왜냐하면 므깃도는 골짜기이며 산이 없기 때문이다. 그와 가까운 곳에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맞섰던 갈멜산이 있으므로, 므깃도와 갈멜산은 모두 아마겟돈의 최후 전투를 보여 주는 예들이다.

예루살렘, 갈멜 산, 므깃도 골짜기를 꼭짓점으로 삼아 삼각형을 그린다면, 예루살렘은 그 삼각형의 남동쪽 꼭짓점에, 갈멜 산은 북서쪽에, 므깃도 골짜기는 북동쪽에 위치하게 된다. 아마겟돈 전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은 두 바다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방의 왕(현대 바벨론의 음녀)은 두 바다와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 사이에서 최후를 맞는다. 그리고 그때 인류에 대한 유예 기간이 끝난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온 소식이 그를 불안하게 할 것이므로 그는 크게 분노하여 나아가 많은 사람을 멸하고 완전히 없애려 할 것이다. 그는 영화로운 거룩한 산에서 바다들 사이에 자기의 장막 궁전을 세울 것이나 마침내 그의 끝이 이르리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때에 네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서 있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일찍이 없었던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 네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그러하리라. 다니엘 11:44-12:1.

엘리야의 삼중적 적용은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연합의 우두머리인 북방의 왕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외적인 대결을 나타낸다. 삼중연합을 예표한 엘리야의 세 원수 중 아합은 북방의 열 지파의 왕으로서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을 대표한다. 그들은 바벨론의 음녀와 음행하고, "한 시간" 동안 자기들의 나라를 그 음녀에게 주기로 동의하는데, 이 "시간"은 일요일 법령 위기의 "그 시간"이다. 바벨론의 음녀는 이세벨로 대표되었고, 이세벨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수풀의 제사장들은

거짓 선지자를 대표한다.

일요일 법령의 위기는 미국에서 곧 임할 일요일 법령으로 시작하여 미가엘이 일어설 때 끝난다. 그 일요일 법령이 도래할 때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이 하나님의 다른 양떼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른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름이 있을 때부터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바벨론의 음녀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다. 그것은 또한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때이기도 하다. 그 '시간'은 더 이상 잊혀지지 않는 두로의 음녀와 함께 공동 통치하기로 열 왕들이 동의하는 때이다. 또한 그것은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그 시간'으로, 십사만 사천이 기치로 높이 들어 올려지는 때이다.

땅의 왕들, 곧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게 살던 자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며, 그녀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말하기를, "아아, 아아, 그 큰 성 바벨론이여, 그 강한 성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임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8:9, 10.

요한이 문자적인 진리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 므깃도를 므깃도의 산("하르")으로 지칭한 것처럼, 바벨론의 음녀와 두로에 대한 심판도 "한 시간" 동안, 또한 "하루"에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임하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기근이라. 그는 불에 타서 완전히 태워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8:8.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는 예언적 기간을 더 이상 예언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교황권에 대한 심판은 '한 시간'으로, 또한 '하루'로 표현된다. 그 심판에서 말하는 '한 시간'은 미국에서 주일법이 제정될 때부터 은혜의 시기가 마감될 때까지의 예언적 기간을 가리킨다. 말세의 엘리야를 고려할 때 이 기간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데,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는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내부적 시험 이후에 이어지며, 교회와 세상 모두의 시험 기간은 동일한 예언적 시작과 끝을 지닌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음성은 두 교회를 향한 서로 구별되는 두 부르심을 나타낸다. 첫째 교회는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고, 둘째로 부름받는 교회는 요한계시록 7장의 큰 무리이다. 14만 4천에 대한 부르심은 성령이 한량대로 부어지고 있을 때 주어지며, 큰 무리에 대한 부르심은 성령이 한량 없이 부어지고 있을 때 주어진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그는 힘 있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다'" (요한계시록 18:1, 2). 이는 둘째 천사가 전한 것과 같은 메시지이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으로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요한계시록 14:8). 그 포도주가 무엇인가? 바벨론의 거짓 교리들이다. 바벨론은 제4계명의 안식일 대신 세상에 거짓 안식일을 주었고, 에덴에서 사탄이 처음 하와에게 말했던 거짓말, 곧 영혼의 자연적 불멸을 되풀이해 왔다. 이와 같은 유사한 오류들을 바벨론은 널리 퍼뜨려 왔으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마태복음 15:9).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은 성전을 신성 모독으로부터 정결케 하셨다. 그분 사역의 말기에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하게 하신

일이었다. 이와 같이 세상을 경고하는 마지막 사업에서도 교회들에게 두 가지 분명한 호소가 주어진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큰 성이여, 이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으로 마시게 하였음이라'(요한계시록 14:8)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가운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의 죄들이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기억하셨음이라'(요한계시록 18:4, 5). 선택된 기별, 제2권, 118.

이슬람의 '동풍'이 도래하여 2001년 9월 11일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요한계시록 18장이 성취되며 힘센 천사가 내려왔다. 그때 그는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이르되,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다"고 외쳤다. 그리고 4절에서는 또 다른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한다. 이 두 음성은 "교회들에게 주어진 서로 구별되는 두 부르심"이다. 말세에 하나님의 서로 구별되는 두 교회는 십사만 사천과 큰 무리로 지칭된다.

14만 4천의 시험 기간은 이사야가 '동풍의 날'로 지칭한 셋째 화의 이슬람으로 시작된다. 그 시험 기간은 머지않아 미국에서 시행될 일요일법과 짐승의 표의 강요로 끝난다. 짐승은 가짜 '북방의 왕'이며 현대 바벨론의 머리이다. 바벨론은 다니엘 7장의 사자이고,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를 대표하는 유다의 불순종한 선지자는 이슬람의 '나귀'(2001년 9월 11일)로 시작해 '사자'(현대 바벨론)로 끝나는 기간에 죽는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불순종한 선지자의 "무덤"으로 표현되는 그 기간 동안, 늦은 비가 분량대로 나누어지고, 십사만 사천의 교회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이 주어진다. 그 기간이 끝날 때, 미국의 일요일 법을 상징하는 "큰 지진"의 "한 시간"에,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의 기간이 "북방 왕"의 표인 짐승의 표의 시행과 함께 도래한다. 동시에 셋째 화의 이슬람이 배도한 세상에 점진적으로 격화되는 심판을 가져오는 데 사용된다. 그 두 번째의 분명한 "큰 무리"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 기간 동안, 십사만 사천의 "기치"가 선포하는 기별은 "북방 왕"의 "표"와, "동방의 자손"으로 표상된 셋째 화의 이슬람의 역할을 밝힌다.

다니엘서 11장 44절에서 교황권을 격노하게 하는 소식과 최후의 교황권 유혈 사태를 촉발하는 소식은 '동방에서 온 소식'(이슬람)과 '북방'(짐승의 표)으로 표상된다. 그 기간에는, 이전 기간과 마찬가지로, '동풍'의 이슬람이 미국에 심판을 가져와 그 기간을 시작하게 하며, 북방의 왕이 '바다들과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서, 곧 므깃도 골짜기와 갈멜산에서 그의 끝에 이를 때 그 기간이 끝난다.

현대 바벨론을 위한, 그녀의 임종의 침상(무덤)을 상징하는 심판 기간은 동쪽의 상징으로 시작하여 북쪽의 상징으로 끝나며, 마치 불순종한 라오디게아 선지자의 임종의 침상이 교회들을 향한 첫 번째 뚜렷한 부름에서 끝났던 것과 같다. 베엘의 거짓 선지자와 유다의 불순종한 선지자가 함께 묻힌 무덤(임종의 침상)은 '나귀'와 '사자' 사이로 상징된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의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세 겹의 원수에 맞섰던 하나님의 마지막 때 백성을 대표한다. 이세벨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에서 교황 권세를 상징하며, 갈멜에서 그녀의 선지자들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수풀의 제사장들로 대표되었다. 바알은 남신을, 수풀의 제사장들은 여신 아스다룻을 대표하였으므로,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우상으로 표현되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상징한다.

짐승의 우상을 먼저 미국 내에서 세우고 이어서 온 세상에 세우는 것은 미국이며, 그 삼중 연합의 거짓 선지자도 바로 미국이다. 열 지파의 왕 아합은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 곧 용을 대표하고, 이세벨은 짐승이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현대 바벨론의 삼중 연합과 대결했는데, 그곳은 바벨론의 음녀가 아무도 도울 자 없이 그 끝에 이르는 곳이다. 엘리야의 삼중적 적용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백성에게 가해지는 외적 대결을 나타내며, 엘리야는 그 세 권세와 직접 대결하는 선지자를 대표한다.

엘리야 이야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비'인데, 이는 대결의 역사 속에서 부어지는 늦은 비를 상징한다. 갈멜산의 대결에 이르기까지 엘리야는 자기의 말이 아니면 비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다. 이세벨의 심판의 '때'로 이어지는 기간은 교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뚜렷한 '음성'으로 대표되는 기간이다. 그 '음성'은 2001년 9월 11일에 도착했으며, 그 기간 동안 '비'는 오직 '분량대로만' 주어졌고, 또한 그 기간에는 하박국의 논쟁과 관련된 서로 경쟁하는 두 늦은 비 기별이 있었다. 하나는 담무스를 위하여 우는 가짜 기별로서 '평안과 안전'의 기별을 대표했고, 다른 하나는 이슬람의 셋째 화에 관한 참된 기별이었다.

참된 '늦은비' 기별은 셋째 화에서의 이슬람의 역할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 기별은 한 출처(바로 Future for America)에서 비롯되었고, 두 기별은 역사가 참된 기별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또한 이러한 때에 '평안과 안전' 기별의 어리석음을 확인할 때까지 우위를 놓고 다투었다.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은 이해되어야 한다. 서로를 해석한다.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진리를 세상에 전한다. 이 예언들은 세상에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예언들이 성취됨으로써, 스스로 설명될 것이다. Kress Collection, 105.

엘리야의 삼중적 적용 가운데 첫 번째 성취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 지목하신 둘째 엘리야에 의해 확증된다. 그 두 증인이 함께 셋째 엘리야를 확립한다.

그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는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선지자보다도 더한 자니라. 이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된 자이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난 적이 없으나,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는 폭력을 당하고, 폭력하는 자들이 그것을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요한 때까지 예언하였느니라. 너희가 받아들이려거든,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7-15.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오늘날 엘리야와 세레 요한의 정신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들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는 마지막 때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과 관련하여 곧 일어날 엄숙한 일들에 심판 아래 놓인 세상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곧 모든 사람이 육체로 행한 바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며, 땅에 있는 그의 교회 구성원들에게는 마치 영원한 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에게 경고를 전해야 하는 엄숙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위대한 투쟁에서 쟁점이 되는 원칙들, 곧 온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는 그 원칙들이, 귀를 기울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험의 마지막 시간, 모든 영혼의 운명이 머지않아 영원히 결정될 이때, 하늘과 땅의 주께서는 그분의 교회가 전례 없이 깨어 행동하기를 기대하신다. 귀한 진리를 앞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을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택한 자, 땅 위의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은총을 입은 자로 여기시며,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찬양을 드러내도록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다. 이처럼 후히 베풀어진 복들은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구원의 복음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옛 선지자들의 환상 속에서 영광의 주께서는 재림에 앞선 어둠과 불신의 날들에 자신의 교회에 특별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의의 태양으로서 그분은 "그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교회 위에 떠오르실 것이었다. 말라기 4:2. 그리고 모든 참된 제자에게서는 생명과 용기와 도움과 참된 치유를 위한 영향이 퍼져 나가게 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일어날 것이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인자가 오시기 직전의 세상 상태를 보여 준다. 성경은 이때를 내다보며 사탄이 모든 능력으로,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역사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9, 10. 그의 활동은 급속히 짙어져 가는 어둠, 무수한 오류와 이단과 미혹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때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사탄은 세상을 포로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 속까지도 누룩처럼 스며들고 있다. 큰 배도는 한밤중처럼 깊은 어둠으로 심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은 시련의 밤, 눈물의 밤, 진리를 위하여 받는 박해의 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둠의 밤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것이다." 선지자와 왕들, 716, 717.